

## 중한 출판번역에서 나타난 다시쓰기 형태

김혜림  
(이화여대)

### 1. 서론

2000년대 들어 지난 10년간 한국의 출판시장에서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25%~30%선을 유지해왔다. 전체 출판번역시장이 양적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25% 이상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해 중한 출판번역물은 양적팽창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들 출판번역물은 대부분 원서를 모두 번역하는 완역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원문 텍스트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번역 출판되는 경우도 있어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사이에 이질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이질성으로 인해 번역 텍스트는 원문텍스트와 비교해 볼 때, 형

---

1) 김혜림 (2008) 「중한 번역물에 대한 독자의 평가 규범 - 웨난(岳南) 작품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2): 27-46에서 인용.

식 및 의미적 차원에서 확연히 다른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남을 수도 있다. 그 다름의 가치는 번역텍스트의 수용상황 및 역자 자신의 창작성 개입 정도에 따라 크게 또는 적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번역은 수용성과 창작성을 기준으로 전개되는 다시쓰기<sup>2)</sup>의 과정으로 번역사는 때로 원문중시자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번역문중시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힘 사이에서 끝없이 균형을 찾아나가는 작업으로 정의된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번역에서의 다시쓰기 개념을 차용하여 번역 텍스트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원문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이질성<sup>4)</sup>이 중한 출판번역물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다시쓰기(Rewriting)

번역에서의 다시쓰기를 공론화한 것은 1985년 테오 허만스(Theo Hermans)가 편집자로 참여한 논문집 『문학의 조작』(*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으로 본 논문집에 참여한 학자들은 번역을 다른 형식의 다시쓰기와 마찬가지로 조작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여기서 다시쓰기란 문화와 역사의 맥락에서 언어적 경계를 넘어 텍스트가

2) 본고 2.1 다시쓰기(Rewriting) 참조.

3) 이향 외 옮김 (2004)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 『통번역과 등가』, 서울: 한국문화사(Israël, Fortunato (ed.) (2003)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89-97에서 인용

4) 본고에서 다루는 이질성은 내용(의미적) 차원을 배제한 형식적 차원만을 의미한다. 즉 분권, 생략, 새로운 편제(구성), 또는 시니피앙의 번역형태 등에 국한한다.

5) 허지운 외 옮김 (2010) 『번역학 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참조. 『문학의 조작』 논문집에 참여한 학자로는 호세 램버트, 헨드릭 반 고프, 수잔 바스넷, 앙드레 르페브르가 있다.

다시 쓰여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 학자는 조작방법이 도착 문화권 내에서 텍스트의 성공 여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다른 언어로 계속 수용되면서 다시 쓰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관심이 원천 텍스트와 그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는 그 이전까지 번역학 연구의 주된 흐름인 원문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번역을 창조적인 다시쓰기로 보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번역을 바라봤던 학자로는 ‘원문’이 시발점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반하여 번역과정이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번역을 원본의 복사가 아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굴절’로 정의한 르페브르(André Lefevere)<sup>7)</sup>, 번역에 있어 다시쓰기 작업은 랑그의 번역이 아닌 담론을 번역하는 것으로 다시쓰기는 목표중심적도 아니고 원천중심적도 아니라고 말한 코르도니에(Cordonnier)<sup>8)</sup>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성향은 “번역은 단 하나의 시스템, 즉 목표 문화 시스템만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 투리(1985: 19)<sup>9)</sup>의 기술주의 학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투리는 『기술번역학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Toury 1985)』(A Rationale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에서 번역을 의뢰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번역 과정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주체가 목표문화 또는 수용자 문화 자체 혹은 그에 속하는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번역을 목적론적인 활동으로 볼 때, 번역을 잘 수행하는지는 상당 부분 번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목표는 잠재적인 수용자 시스템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투리의 주장과 같이 도착 문화에 속한 번역자가 도착 문화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도착 문화 준거 틀을 적용해 새로운 글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피테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 피테는 그의 삼분법 모델<sup>10)</sup>에서 번역사가 외국 글의 내용

6) 김지원, 이근희 옮김 (2004) 『번역학-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Taylor & Francis Books Ltd), 3에서 인용.

7) 김지원, 이근희 옮김 (2004: 1-25)

8)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9) 허지운 외 옮김 (2010) 『번역학 발전사』, 90에서 재인용.

10) “두 번째 시대는 번역가가 자신을 외국의 환경 속에 옮겨놓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 글의 내용만을 취할 뿐, 자신의 표현 양식과 문화 준거 틀을 적용해 글을

만을 취할 뿐, 자신의 표현 양식과 문화 준거 틀을 적용해 새로운 글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칭하여 패러디(parodistic)<sup>11)</sup>의 시대로 설명한다.

도착 문화의 수용성을 감안한 번역의 다시쓰기는 번역텍스트의 파생성이나 이질성<sup>12)</sup>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바, 17세기의 ‘벨 앙피델(Belles Infidèles)’이나 자국화번역, 이국화번역, 친숙하게 하기, 낯설게 하기 등의 담론도 이질성의 결과 내지는 기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쓰기를 통해 드러난 번역텍스트의 이질성은 텍스트의 수용상황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상기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번역사는 원문 텍스트를 번역문의 독자가 수용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번역사는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은 담화 내에서 해당 요소의 기능을 감안하여 삭제, 조정하거나 도착어의 등가적 표현으로 대체한다<sup>13)</sup>.

본고에서는 도착 문화권의 수용성의 각도에서 새롭게 다시 쓰여진 결과로 파생된 이질성을 형태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말하는 다시쓰기(Rewriting)란 내용(의미적) 차원을 배제한 형태적 차원의 이질성을 파생시키는 번역과정으로 원문의 형식과 번역문의 형식이 상이하여 일종의 ‘전환(Shift)’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패러디 시대라 칭하고자 한다.” 허지운 외 옮김 (2010) 『번역학 발전사』, 30에서 인용.

- 11) 2010년 ‘신데렐라 언니’ 라는 드라마가 TV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본 드라마는 고전의 주변 인물을 화자로 내세우는 ‘다시쓰기’의 한 형태로 이런 ‘다시쓰기’는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나의 일방주의를 해체하고 목소리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중앙일보 2010, 5, 4일자 기사)
- 12) 이향 외 옮김 (2004)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 『통번역과 등가』, 서울: 한국문화사(Israël, Fortunato (ed.) (2003)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89에서 인용.
- 13) 이향 외 옮김 (2004: 92)

### 3. 연구 방법 및 결과

#### 3.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중한 출판번역물을 대상으로 원문과의 대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번역물에서 나타나는 원문으로부터의 형태적 이질성을 유형화하고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한 출판번역물을 토대로 번역의 다시쓰기에 의해 발생한 원문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형태적 이질성을 추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이질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출판번역물 가운데 2쇄 이상 판매에 들어가 국내에서 일정 독자층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YES24 도서리뷰 평점 4이상을 받은 출판번역물의 원문텍스트와 번역텍스트로 <표 1>과 같다. 이를 분석 대상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용성을 기준으로 번역의 다시쓰기 전략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 분석대상 텍스트

	원문 텍스트	번역 텍스트
1	蘇童(2006)『碧奴』, 重慶出版社	김은신 역(2007) 『눈물 1, 2』, 문학동네
2	浮石(2006)『靑瓷』, 湖南文藝出版社	한정은 역(2008) 『관시전쟁 1, 2』, 푸르메
3	蘇童(2004)『順子記』, 上海文藝出版社	문현선 역(2008) 『마씨집안 자녀 교육기』, 아고라
4	劉震雲(2007)『手机』, 長江文藝出版社	김태성 역 (2007) 『핸드폰』, 황매
5	曹文軒(2003)『草房子』, 作家出版社	전수정 역(2008) 『힘센 상상 1, 2』, 새움
6	岳南(2001)『嶺南震撼』, 浙江人民出版社	이익희 역(2001) 『오랑캐의 지하궁전 1, 2』, 일빛
7	岳南(1997)『夏活的軍團』, 新世界出版社	유소영 심규호 역(2001) 『부활하는 군단 1, 2』, 일빛
8	岳南(2000)『尋找北京人』, 華夏出版社	유소영 심규호 역(2001)

		『주구점의 북경인 1, 2』, 일빛 이익희 역(2001)
9	岳南(1998)『西漢亡魂』, 新世界出版社	『마왕퇴의 귀부인 1, 2』, 일빛
10	韓少功(2004)『馬橋詞典』, 人民文學出版社	심규호 유소영(2009) 『마교사전 1, 2』, 민음사
11	余秋雨(2006)『山居筆記』, 文匯出版社	유소영 심규호 역 (2003) 『천년의 정원』, 미래 M&B
12	余秋雨(2009)『文化苦旅』, 爾雅出版社有限公司	유소영 심규호 역 (2002) 『중국문화답사기』, 미래 M&B
13	余秋雨(2009)『千年一嘆』, 時報文化出版企業股份有限公司	유소영 심규호 역 (2001) 『세계문명기행』, 미래 M&B
14	彭學軍(2008)『腰門』, 二十一世紀出版社	유소영 역 (2010) 『안녕, 나의 어린 시절』, 아이세움

### 3.2. 분석 결과

중환 출판번역에서 나타나는 다시쓰기의 형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권이다. 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물이 언어적 특징으로 인해 보통 길어지는 경향 및 출판사의 책 만들기 관행 등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다시쓰기 형태는 부분 생략으로 원문에서 지나치게 중화주의적 색채를 드러냄으로 한국 독자의 구미에 맞지 않거나 한국 독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흔히 생략의 형태로 다시 쓰여지고 수용성의 각도에서 스토리 전개상 순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순서를 뒤바꾸는 다시쓰기 전략이 사용된다.

한편 명칭과 스토리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띠는 소설의 형태에서는 특히 인물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특별 고려 대상이 된다. 이는 시니피앙<sup>14)</sup>의 처리에 번역사의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얘기로 이 역시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번역사의 특별 선택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다시쓰기의 예이다.

그 밖에 각각의 문화권에서 상용되는 형식으로 재판집 되는 경우가 있는데

14)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 따르면 시니피앙은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청각영상으로서 의미 즉 記意(시니피에)를 전달하고 시니피에는 시니피앙에 의해 표시되는 것 즉 의미를 말한다. 이정민, 배영남 (2000) 『언어학사전』, 박영사 793-794에서 인용.

이러한 유형의 예로는 사전이 대표적이다.

### 3.2.1. 분권

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물이 언어적 특징으로 인해 보통 길어지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표의문자를 사용하여 외형상 함축적 표현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 중국어 원문 텍스트와 달리 조사를 사용하고 어미의 활용이 발달되었으며 띄어쓰기로 글을 쓰는 한국어의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해 번역 텍스트의 분량은 원문텍스트에 비해 1.3~2배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들고 다니며 읽기 편한 가벼운 책을 선호하는 국내 독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보통 분량의 중국어 원문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분권의 형태로 번역 출판된다. 이에 관한 예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권 형태의 출판번역물의 예

	원문 텍스트	번역 텍스트
1	『碧奴』	『눈물 1』, 『눈물 2』
2	『靑瓷』	『관시전쟁 1』, 『관시전쟁 2』
3	『草房子』	『힘센 상상 1』, 『힘센 상상 2』
4	『嶺南震撼』	『오랑캐의 지하궁전 1』, 『오랑캐의 지하궁전 2』
5	『夏活的軍團』	『부활하는 군단 1』, 『부활하는 군단 2』
6	『尋找北京人』	『주구점의 북경인 1』, 『주구점의 북경인 2』
7	『西漢亡魂』	『마왕퇴의 귀부인 1』, 『마왕퇴의 귀부인 2』
8	『馬橋詞典』	『마교사전 1』, 『마교사전 2』

### 3.2.2. 부분 생략 및 순서 조정

원문이 지나치게 중화주의적 색채를 드러냄으로 한국 독자의 구미에 맞지 않거나 스토리 전개상 기본 컨셉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또는 한국 독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은 생략의 형태로 다시 쓰여지는 바, 생략된 내용과 생략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천년의 정원』(원서명: 『山居筆記』)

이 책은 『중국문화답사기』의 후속편으로 저자가 잡지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작가 스스로 서문<sup>15)</sup>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저자가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떠오른 단상으로부터 출발해 정치적 업적과 문화적 콤플렉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노림과 공생 관계, 문화적 영혼의 유배와 파멸, 부활 등 잊혀져가는 중국 역사 속 현상에 대해 나름의 심층적인 시각으로 사유하는 글이다.

원문텍스트의 전체 내용 중 번역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생략되었다.

## &lt;번역서에서 생략된 부분&gt;

## 1) 「歷史的暗角」(번역서: 「문제는 소인이다」)에 대한 부록 부분 삭제.

원래 부록의 내용은 원문텍스트의 저자가 소인(小人)에 대한 견해를 담아 「歷史的暗角」라는 글을 발표한 후, 당대 두 학자 장셴량(張賢亮)과 웨이젠민(衛健民)이 연이어 타 매체에 소인에 대한 글을 발표했음을 알리고, 이들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저자는 그 중 웨이젠민의 글을 첨부하면서 장셴량과 웨이젠민이 쓴 글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라 둘 다 실었으면 좋았겠지만, 장셴량의 글은 원본을 찾기가 어려워 첨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록이 생략되었다. 번역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위치우위가 쓴 열 한편의 산문을 실는다는 전체 구성 개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 2) 「文外心境(四篇)」 부분 모두 삭제

「文外心境」은 ‘答學生問(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다)’, ‘我做了模特(모델을 했다)’, ‘沒那麼重要(중요하지 않다)’, ‘酣睡寒風中(선선한 바람 가운데

15) “나는 실질적인 유적들을 벗어나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수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독자들을 불러 이 시대의 생명으로 이를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의 정원』의 기본 내용이다.” 『천년의 정원』 6-7에서 인용.



데 단잠) 등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答學生問’은 남경대학 강연 당시, 학생 5명과의 대화 내용(질의응답 형식)이고 ‘我做了模特’, ‘沒那麽重要’, ‘酣睡寒風中’은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비평가들에게 대처하는 작가 자신의 철학(입장)을 짚막하게 담은 에피소드 형식의 글이다.

즉, 「文外心境」은 저자가 남경대학에 강연 갔을 때, 학생들과 대화한 내용과 저자의 작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 그 중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비평가들에 대해서 저자 본인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원문텍스트의 기본 컨셉인 중국 문화와는 다소 동떨어진다.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한 현상들에 대한 저자의 기고문이 이 책의 주축임을 감안할 때, 원문텍스트의 주제와 맞지 않아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 독자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부차적인 내용이라는 판단하에 번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 3) 원문텍스트 곳곳에 삽입된 ‘사진’은 번역텍스트에서 일괄 삭제되었다. 이는 번역서가 원서와 달리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면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천년의 정원』에서 나타난 번역의 다시쓰기 결과

원문텍스트	번역텍스트	비 고
新版自序	신판서문	
小引	서문	
一个王朝的背影	사라져간 왕조의 뒷 모습	
流放者的土地	유배자의 땅, 영고답에서	
脆弱的都城	나약한 도시의 운명	
蘇東坡突圍	소동파, 포위를 뚫다	
千年庭院	천년의 정원	
抱愧山西	산시의 몰락을 돌아 보며	
鄉關何處	고향이 그 어디메뇨	

天涯故事	하늘가 아득한 섬의 전설	
十萬進士	중국 과거제의 비극	
遙遠的絕響	그 시대, 그 인물들, 그들의 소리	
歷史的暗角	문제는 소인이다	
附錄	생략	작가가 소인에 대한 견해를 담아 ‘歷史的暗角’라는 글을 발표한 후, 張賢亮과 衛健民 두 학자도 타 매체에 소인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이들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
談“小人”(衛健民)	생략	그 중 衛健民의 글을 별도 첨부(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두 글이 상반되는 입장이라 둘 다 실으면 좋겠지만, 張賢亮의 글은 원본을 찾기가 어려워 첨부하지 않는다고 함)
附 文外心境(四篇) 答學生問 我做了模特 沒那么重要 酣睡寒風中	생략	*答學生問 남경대학 강연 당시, 학생 5명과의 대화 내용(질의응답 형식) *我做了模特 / 沒那么重要 / 酣睡寒風中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비평가들에게 대처하는 작가 자신의 철학[입장]을 짚막하게 담은 세 편의 글[에피소드 형식]
	옮긴이 후기	

## (2) 『중국문화답사기』(원서명: 『文化苦旅』)

이 책(16)은 중국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단상들을 적은 기행 에세이로 중국어 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소제목이 나열되는 구조인 반면, 한국어 번역서는 원서의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재구성하여 ‘둔황에서 동정호까지’, ‘쑤저우에서 상하이까지’, ‘밤비 속의 시정’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1, 2부는 여행 에

16) 분석을 위해 사용된 원문텍스트는 2009년 타이완 이아출판사유한공사(爾雅出版社有限公司)가 출판한 저본임.

세이 느낌이 나도록 공간의 이동 순서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마지막 3부는 중국 문화, 문인, 현상 등에 대한 단편들을 따로 모아놓았다. 이에 따라 목차 구성에 있어서 순서를 재조정하거나 생략 등의 다시쓰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번역 다시쓰기를 통해 조정, 생략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차 순서 조정

- ① 1부에서 「道士塔」에서 「莫高窟」로 기술되었던 원문텍스트와 달리 번역텍스트에서는 「천년을 살아 숨쉬는 둔황 막고굴(莫高窟)」이 먼저 나오고 「둔황 석굴에 배어 있는 슬픔과 비애(道士塔)」 부분이 뒤에 위치한다. 이는 둔황 막고굴의 내부에서 시작해 외부로 이동하는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2부에서도 「靑雲譜隨想」과 「白發蘇州」의 순서가 「동방의 베니스, 고도 쭈저우[白發蘇州]」 다음에 「청운보에서 예술의 혼을 만나다[靑雲譜隨想]」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쭈저우를 먼저 기술하고 그 안에 청운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번역적 선택으로 보인다.
- ③ 원문텍스트에서는 전반부에 배치된 「貴池讖(사라져 가는 전통. 나희)」와 「酒公墓(주공 장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며)」를 번역텍스트에서는 3부 내용 속으로 편입시켰다.

2) 내용 생략

「廟宇」, 「老屋窗口」, 「三十年的重量」, 「漂泊者們」, 「華語情結」, 「這里眞安靜」 부분이 번역텍스트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양 조절을 위해 한국 독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중국문화답사기』에서 나타난 번역의 다시쓰기 결과

원문텍스트	번역텍스트	비 고
自序	서문	
	1부 둔황에서 동정호까지	道士塔, 莫高窟

道士塔	천년을 살아 숨쉬는 둔황 막고굴	번역 순서 바뀜	
莫高窟	둔황 석굴에 배어 있는 슬픔과 비애		
陽關雪	양관에 내리는 눈		
沙原隱泉	영혼을 울리는 사막과 푸른 샘물		
柳侯祠	유후사에서 유종원을 추모하다		
白蓮洞	인류조상의 숨결이 살아 있는 백련동		
都江堰	영원한 생명의 원천 도강언		
山峽	싼사에서 이백의 자취를 찾다		
洞庭一角	동정호의 아름다운 신화와 전설		貴池灘, 뒤로 이동
廬山	여산에 올라 세속을 초월하다		
貴池灘			
	2부 쭈저우에서 상하이까지		
靑云譜隨想	동방의 베니스 고도 쭈저우	靑云譜隨想, 白發蘇州 번역순서 바뀜	
白發蘇州	청운보에서 예술의 혼을 만나다		
江南小鎮	강남의 작은 마을들		
寂寞天柱山	애잔한 마음의 절경. 천주산		
風雨天一閣	한 장서가의 꿈이 깃든 천일각		
西湖夢	서호에서 꿈속의 풍광을 보다		
狼山腳下	거칠고 황량한 낭산 자락에서		
上海人	다시 본 상하이 사람들		
五城記	다섯 도시 이야기		
	3부 밤비 속의 시정		
牌坊	패방에서 여인의 한을 보다	酒公墓, 뒤로 이동	
廟宇	생략		
夜航船	야항선의 뱃고동 소리		
吳江船	야항선에 얽힌 아스라한 추억		
信客	중국의 우편배달부. 신객		
酒公墓			
老屋窗口	생략		
廢墟	폐허 예찬		
夜雨詩意	밤비 속의 시정		
筆墨祭	사라져 버린 붓 문화를 추억함		
藏書憂	장서의 괴로움		
	사라져 가는 전통. 나희	‘사라져 가는 전통, 나희’ : 앞의 ‘貴池灘’에 해당되는 내용	

	<b>주공 장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며</b>	‘주공 장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며’: 앞의 ‘酒公墓’에 해당되는 내용
腊梅	겨울에 피어난 매화	
家住龍華	나의 고향. 용화	
三十年的重量	생략	
漂泊者們	생략	
華語情結	생략	
這里真安靜	생략	
后記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3) 『세계문명기행』(원서명: 『千年一嘆』)

『세계문명기행』<sup>17)</sup>은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홍콩의 봉황위성 TV가 기획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인류 고대 문명(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및 히브리와 페르시아, 인더스와 갠지스 문명 등)의 발상지를 여행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기행 에세이로 원문텍스트의 구성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날짜 별로 일기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번역텍스트에서도 원서의 컨셉과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본서에 대한 번역에서는 목차 중 소제목이 통째로 빠지는 경우는 없었고, 각 내용마다 일부 내용을 생략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畏怯巴特農」(원서 p. 55-57): 「두려운 파르테논 신전」(번역서 p. 87-90) 가운데 원문텍스트의 마지막 부분(p. 57)<sup>18)</sup>이 번역텍스트에서 생략되었

17) 분석을 위해 사용된 원문텍스트는 2010년 타이완 시보문화출판사기업고분유한공사(時報文化出版企業股份有限公司)가 출판한 저본임.

18) “当我背靠巴特農神殿俯視狄奧尼索斯劇場時，突然想到應該給妻子打一个電話。她一直向往巴特農神殿，却也不會知道產生人類戲劇的第一个劇場就在神殿脚下。手机的聲音很清晰，她已經睡了，一听巴特農立即清醒。她因演出合同在身，不能到希腊來陪我，却可以赶到埃及，然后一起去尋訪耶路撒冷和巴比倫。

다. 이는 파르테는 신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묘사하는 부분이라서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封存的法老人」(원서 p. 97-99): 「봉존된 파라오」(번역서 p. 161-165) 가운데 원문텍스트의 마지막 문장(p. 99)<sup>19)</sup>이 번역텍스트에서는 생략되었다. 생략 이유로는 이 문장 앞에 아랍사람들이 중국의 ‘청량유(淸涼油, 연고이름)’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 냄새를 매우 좋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신비화하려는 저자의 주관적 우월의식에 대해 한국 독자가 우호적일 리가 없어 수용성의 각도에서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
- 3) 「把傷痕當酒窩」(원서: p. 170-173): 중국 노인과의 대화(번역서 p. 293-296) 중 원문텍스트 중간부분(p. 171-172)<sup>20)</sup>이 생략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내용 전개는 취재진이 요르단 중국식당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71세의 식당주인을 만났으며 그의 부인이 유명한 뚜웨이성(杜月笙, 장제스의 부하, 상해 암흑가 조직인 청방의 우두머리)과 야오위란(姚玉蘭, 경극배우)의 딸이자 공연 배우 출신인 뚜메이루(杜美如)임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번역에서 생략된 내용은 작가가 식당주인 집을 방문했을 때 뚜메이루가 그녀의 부모님과 가정사에 대해 언급한 대화 내용으로 여행 중 만난 주변 인물의 개인사를 다룬 내용이므로 생략해도 전체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뚜웨이성, 야오위란 등이 중국인들에게는 역사

---

(파르테는 신전을 보면서 아내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휴대폰을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 이집트, 가자지구, 예루살렘 여행에서는 아내가 동행할 예정이다)”

- 19) “穿過千年，穿過万里，穿過沙漠，穿過巨石，你們聞到了嗎？中國大地的神秘氣息？(천년을 뛰어넘어 만리를 지나 사막을 가로지르고 거석을 지나 중국대지의 신비한 기백을 느꼈는가?)”
- 20) “以下是她的一些談話片段，現在很多不了解杜月笙及其時代的讀者很可能完全不懂，但我實在舍不得在地中海与兩河流域之間的沙漠里，一个中國老婦人有關一个中國旧家庭的絮絮叨叨。……” (다음은 그녀와의 대화 내용이다. 뚜웨이성과 그 시대를 모르는 요즘 독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지중해와 두 강 사이의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 노부인의 파란만장한 가정사를 진심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적으로 익숙하고 의미 있는 인물이지만, 한국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아 관심을 가질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4) 목차 마지막 「補記(후기)」 부분은 번역텍스트에서 생략되었는데 이는 여행이 마무리된 후, 방송국으로부터 ‘千嬉之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주제곡의 작사를 의뢰 받았다는 내용으로 저자가 작사한 ‘千年走一回’의 가사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여행 에세이라는 전체 컨셉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부분인데다 중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 프로그램과 주제곡에 대한 내용이라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한국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세계문명기행』 번역의 다시쓰기 결과

원문텍스트	번역텍스트	비 고
自序	서문	
出發	1장 출발	
希臘	2장 그리스	
畏怯巴特農	두려운 파르테논 신전	일부 내용 생략
埃及	3장 이집트	
封存的法老人	봉존된 파라오	일부 내용 생략
以色列、巴勒斯坦	4장 이스라엘	
約旦	5장 요르단	
把傷痕当酒窩	중국 노인과의 대화	일부 내용 생략
伊拉克	6장 이라크	
伊朗	7장 이란	
巴基斯坦	8장 파키스탄	
印度	9장 인도	
尼泊爾	10장 네팔	
到達	11장 도착	
尾聲	여행을 마무리하며	
補記	생략	

### 3.2.3. 시니피앙의 처리에 있어서 번역가의 창작정신 발휘를 통한 다시쓰기

기호학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의 요소 역시 기호의 일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의 요소로부터 記標(*signifiant*)와 記意(*signifié*)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지’라는 단어에서 기표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기의는 정지하라는 요구이다.

문자 가운데 기의가 기표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중국어와 같은 표의문자의 경우로 표의문자에서는 기의와 기표가 합쳐져서 또 다른 記標로 행세한다<sup>21)</sup>.

이와 같은 중국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명칭과 스토리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띠는 소설의 형식에서는 특히 인물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특별 고려 대상이 되는 바, 아래 원문 텍스트의 인물명 번역에 작용한 다시쓰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다.

(1) 『안녕, 나의 어린 시절』 (원서명: 『腰門』)

본 소설은 작은 문(요문) 밖의 세상에서 만남과 이별, 첫사랑의 아픔 등을 겪으며 성장해가는 주인공 모리의 어린시절을 그렸다.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 주인공 모리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지극히 내성적이다. 모리는 언제나 바닷가에서 모래를 갖고 혼자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아저씨 얼굴에 묻은 모래를 얘기하려다 그만 ‘沙沙(샤샤)’라고 답하고 만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은 ‘沙沙’가 되어버린다. 번역서에서는 주인공 이름 ‘沙沙’를 중국어 원문 텍스트의 의미 모래 沙를 살려 ‘모리’로 바꾸었다. 이는 번역자가 번역텍스트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정신을 발휘한 다시쓰기의 결과로 분석된다.

주인공 외에 건설 현장을 떠돌며 돈을 벌기 위해 외지에 나가 있던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살고 있는 모리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주변인물로 오직 한 마디 ‘물리오’만 똑똑하게 외칠 뿐 병어리인 ‘水孩子(수이하이즈:물아이)’는 ‘물리오빠’로 번역되었다.

이에 반해 원 할머니 ‘云婆婆(Yun 할머니)’, 샤오 선생님 ‘肖老師(Shao 선생님)’, ‘칭류’ ‘靑榴(Qing Liu)’, ‘통루어’ ‘銅羅(Tong Luo)’, ‘타오리리’ ‘陶

21) 김경용 (2002)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40-44에서 인용.



麗麗(Tao Lili)’는 중국어 발음을 살린 음역의 방식으로 번역되었으며 ‘麻臉奶奶(곰보 할머니)’는 ‘麻臉(곰보)’이 갖고 있는 뜻을 살려 ‘곰보 할머니’로 의역되었다.

이렇듯 번역사는 시니피앙의 처리에 있어서 창작정신을 발휘함으로 때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론 음역 또는 의역 등을 적절히 섞어가며 다시쓰기 전략을 사용한다.

### 3.2.4. 각각의 문화권에서 상용하는 사전의 편제로 재편집 된 경우

#### (1) 『마교사전』(원서명 : 『馬橋詞典』)

중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한소공의 장편소설 『마교사전』은 한소공이 1968년 문화대혁명 시기 호남성 먹라현이라는 산골 마을에 하방되어 강제 노동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로, 마교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통해 언어와 권력의 관계, 그리고 언어 밑바탕에 깔린 인간 본연의 정신세계를 파헤친다.

지식 청년 한소공은 마교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통해 그곳의 생활상을 이해해 나가면서, 그들이 삶과 죽음, 길흉화복에 대해 독특한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마교란 지역이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자적인 언어 환경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 까닭에 마교의 언어는 중국어는 물론, 다른 지역의 언어와 달리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규칙이나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작가는 ‘사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마교에서 쓰는 115개 단어에 해설을 붙이고 그 속에 에피소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문텍스트는 사전적 특성을 살려 회수에 따라 쪽수를 찾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번역텍스트는 단어 색인으로 구성해서 한글 찾기 방식으로 재편집되었다.

## 4. 결론

번역은 다시쓰기의 결과물이다. 원문텍스트의 선택 단계에서부터 번역텍스트

트가 출판되어 독자와 대면하기까지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수용성을 감안한 다시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번역의 다시쓰기를 통해 중한 출판번역물이 어떠한 이질성을 갖게 되는지 즉 원문텍스트와 비교해 볼 때, 번역텍스트가 갖고 있는 형태상 이질성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이질성을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한 출판번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눈물 1』의 번역텍스트 21권, 『碧奴』의 원문텍스트 13권을 대상으로 원문과의 대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번역물에서 나타나는 원문으로부터의 형태적 이질성을 유형화하고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한 출판번역에서 나타난 텍스트 다시쓰기의 형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 분권, 2) 생략 및 순서 조정, 3) 시니피앙의 처리에 있어서 번역가의 창작정신 발휘, 4) 각각의 문화권에서 갖는 특정 텍스트 장르의 편제를 살려서 재편집 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질성의 발생 원인은 큰 틀에서 볼 때,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분권의 경우,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물이 언어적 특징으로 인해 보통 길어지는 경향 및 출판사의 책 만들기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중한 출판번역물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반면, 생략 및 순서 조정은 특정 번역자(유소영/심규호)에 한해 발견되는 특징으로 이는 출판번역에서 완역이 아닌 부분생략의 경우, 원저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상의 문제<sup>22)</sup>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명칭과 스토리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띠는 소설에서는 주인공 이름과 같이 시니피앙의 처리에 있어 번역자의 적극적인 다시쓰기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처럼 각각의 문화권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는 경우엔 도착 문화권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쓰기 형태가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다시쓰기 개념을 형태적인 차원의 이질성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나 번역학에서의 다시쓰기 개념이 문화와 이데올로기, 시스템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다시쓰기에 대한 내용 차원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22) 2011년 6월 6일 번역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

## 참고문헌

- 김경용 (2002)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순미 (2011)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추가 정보 제공 방법 - 관련성 이론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35-74.
- 김지원, 이근희 옮김 (2004) 『번역학-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Taylor & Francis Books Ltd).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세상
- 김혜림 (2008) 「중간 번역물에 대한 독자의 평가 규범 - 웨난(岳南) 작품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2): 27-46.
- 이기식 김갑년 옮김 (2002) 『번역교육입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Wilss, Wolfram (1996) *Übersetzungsunterricht: Eine Einführung*, Tübingen: Narr).
- 이정민, 배영남 편 (2000) 『언어학사전』 서울: 박영사
- 이향 외 옮김 (2004)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 『통번역과 등가』, 서울: 한국문화사(Israël, Fortunato (ed.) (2003)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9) 『번역교육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Chesterman, Andrew & Wagner, Emma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 정혜옥 (2010) 『번역과 문화연구』,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 허지운 외 옮김, 김혜림 감수 (2010) 『번역학 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朱健平 (2007) 『翻譯:跨文化解釋』, 湖南: 湖南人民出版社

[Abstract]

### Forms of Rewriting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for Publication

Kim, Hyerim

(Ewha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ranslation is the product of rewriting. Considering acceptability of the text to the target audience, rewriting is a feature of the translation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source text till the finished book reaches the readers' hands.

This paper analyzes Korean-Chinese translated publications that have gone through this process of rewriting to identify characteristics in the form of those publications when compared to the original text,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form and their caus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21 translated publications including *Nunmul 1* (Tears I) and 13 original Chinese texts including *Binu* (碧奴), differences of form were identified and organized according to type.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differences, the major forms of rewriting appearing in Chinese-Korean translated publications are 1) publication of one book in two (or more) volumes 2) omission, 3) creativity on the part of the translator in dealing with the *signifiant* and 4) cases of re-editing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the genre of a particular text in each culture.

In the broad framework, through publication of one book in multiple volumes to increase acceptability to the target audience, works translated from Chinese to Korean generally become longer than the original text due to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book publication practices. These are characteristics generally found in Chinese-Korean translated public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omission, for certain translators (Yu So-yeong, Shim Gyu-ho) partial omission resulting in an incomplete translation

is carried out on the condition of the author's prior permission,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This suggests that active intervention on the part of the translator is not yet common in Korea.

In addition, in novels where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es and the story active rewriting on the part of the translator is necessary in dealing with *signifiant* such as the name of the main character. In particular, when there are forms distinct to each culture such as found in dictionaries, rewriting is carried out in such a way as to make the text acceptable to the target culture.

▶ Key Words: rewriting, acceptability, forms, source text, target text

김혜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hyerim@ewha.ac.kr

관심분야: 순수통번역학, 응용통번역학, 중국어학, 중국어교육학

논문투고일: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